

## 유아기 자녀를 둔 남편의 양육참여 및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종단적 자기-상대방 효과\*

윤 기 봉<sup>1)</sup>

이화여자대학교 아동가족연구소

지 연 경<sup>2)</sup>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남편의 양육참여와 부부의 양육스트레스가 자신과 상대방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한국아동패널의 5차(2012)~7차년도(2014)까지 지속적으로 유아와 동거하며, 취업 중인 395쌍의 부부 자료를 사용하였다. 대응표본 t 검정, 상관관계,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한 자기-상대방 효과 분석 결과, 아내의 양육스트레스가 높고, 결혼만족도는 낮았으며, 아내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면 남편의 양육스트레스도 높고,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높으면 남편의 결혼만족도도 높았다. 또한 부부의 양육스트레스는 각각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자기 효과는 유의하였으나, 상대방 효과는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남편의 양육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만 나타났다. 아내와 남편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크기는 차이가 없었으나,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남편의 양육스트레스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양육참여가 많을수록 아내의 양육스트레스가 낮고,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본 연구는 남편의 양육스트레스가 자신의 결혼만족도 뿐만 아니라 아내의 결혼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취업모와 더불어 남편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요어 : 맞벌이, 아버지, 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 자기-상대방효과

---

\* 본 논문은 2017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임.

1) 이화여자대학교 아동가족연구소, 박사후연구원

2) 교신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초빙교수(E-mail: y.chee@ewha.ac.kr)

## I. 서 론

한국의 초혼부부 중 맞벌이 부부는 42.9%에 달하며(통계청, 2016), 미혼직장인의 결혼 후 맞벌이 의향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사회 내에서 맞벌이 부부는 증가하고 있으며, 외벌이와는 다른 가족 내 역동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맞벌이 부부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부부 공동에게 발생하는 사건들을 부부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건강한 결혼생활의 유지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자녀양육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부 공동의 스트레스란 남편과 부인 모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스트레스 사건으로(Revenson, Kayser, & Bodenmann, 2005), 부부가 공동의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부부간의 관계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제까지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에서 결혼만족도 개념은 부부 각자의 주관적 측면에서 접근했으며, 따라서 결혼만족도를 부부 각자가 결혼 생활에서 경험하는 만족감 또는 행복감 등의 주관적 느낌과 태도로 정의하며, 부부 각자의 보고로 접근해왔다(우현주, 유계숙, 2013; Bradbury, Fincham, & Beach, 2000; Spanier, Lewis, & Cole, 1975).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부부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녀의 발달에도 영향(박성연, 1992; 이경희, 김영희, 신성일, 2012; Davies, Sturge-Apple, Woitach, & Cummings, 2009; Froyen, Skibbie, Bowles, Blow, & Gerde, 2013)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간으로 보면 부부의 인생에 있어서도 큰 자원이 될

수 있다.

결혼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살펴보면, 결혼 초기 신혼부부 때 높았던 결혼만족도가 자녀를 양육하기 시작하면서 낮아진다고 알려져(김민녀, 채규만, 2006; Cole, 1984; Dew & Wilcox, 2011; Spanier et al., 1975), 자녀의 출생과 성장에 따라 양육으로 인한 부담감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즉, 유아기의 자녀를 둔 부부는 ‘부모’라는 새로운 역할을 시작한 후 일상의 주된 관심사가 자녀의 양육이며, 그에 따라 자녀를 가진 부부 공동 스트레스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양육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자녀의 출산으로 인해 부부간에는 역할 분담의 변화나 경제적 자원의 부담, 자녀에 대한 끊임없는 보살핌이 요구되는데 (Abidin, 1990; Crnic & Greenberg, 1990),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은 맞벌이 부부의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연구들에서는 여성을 주양육자로 간주하고 아내의 양육스트레스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최근 사회변화에 따라 남편의 양육에 대한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남편의 양육스트레스에도 주목하기 시작하였다(김유나, 박애리, 2016). 즉, 자녀를 두고 있는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는 이 시기 부부관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맞벌이 부부 내에서는 가정 내에서 가사 및 양육 업무와 함께 직장에서의 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취업모와 이를 돕는 남편의 양육스트레스는 결과적으로 결혼에 대한 만족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외의 많은 연구자들은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면 결혼만족도는 낮을 수 있음을 밝혀왔다(금지현, 김동심, 2014; 조성희, 박소영, 2012; Bodenmann, 2005). 특히 취업모의 역할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일-가정 갈등(work-family conflict)의 개념적 틀에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결과를 고찰하거나(Frone, 2003; Voydanoff, 2004), 또는 일부의 연구에서 일-가정 촉진(work-family facilitation)과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다중역할-확장이론(multiple roles-expansionist theory of gender, work, and family)에 근거하여 기혼 여성이 수행하는 여러 가지 역할이 개인의 발달과 가족관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강혜련, 윤미자, 2004; 노성숙, 한영주, 유성경, 2012; Barnett & Hyde, 2001; Frone, 2003). 구체적으로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면 결혼만족도가 낮았으며(전춘애, 박성연, 1996; Hochschild & Machung, 1989), 영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가 갖고 있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본인의 결혼에 대한 만족도를 감소시켰다(금지현, 김동심, 2014; 조성희, 박소영, 2012).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유아기 시기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아내가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면 본인의 결혼만족도가 낮아짐은 확인할 수 있으나, 남편의 양육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남편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남편이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를 탐색하는 연구들(김선애, 한유진, 2009; 송진숙, 송진영, 2009)이 소수 이루어졌으며, 남편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본 연구만 존재한다(Liu & Wang, 2015). 그럼에도 아내들에 비해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스트레스에 더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는 연구들(김시연, 서영석, 2010; Whiffen, & Gotlib, 1989)은 남편 또한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면 결혼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부부의 양육스트레스가 각각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남편보다 아내가 받는 양육스트레스가 높고(김기현, 조복희, 2000), 주양육을 맡아서 해야 한다는 인식과 그에 따른 일상적이고 반복적 양육 업무로 인한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를 감소시킨다는 연구(이영미, 김정희, 1997)에 근거할 때, 남편보다 아내가 양육스트레스로 인해 감소되는 결혼만족도보다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의 양육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비교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남편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남편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알 수 없으며, 아내의 양육스트레스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따라서 남편의 양육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이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해 기초적인 이해를 가지고 추후연구를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남편의 양육참여는 아내의 양육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 자녀양육은 부모 모두에게 공동책임으로 여겨지며, 기혼여성의 사회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남성의 양육 참여도 더더욱 요구되고 있다(손영빈, 윤기영, 2011). 또한 많은 연구들에서도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는 것은 어머니의 양육과 또 다르게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Gilbert, Hanson, & Davis, 1982; Lamb, 2004)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의 양육참여는 자녀양육을 하는 부부에게 큰 자원이 될 수 있으며,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서주현, 김진경, 2012; 안재진, 2011) 및 결혼만족도(손영빈, 윤기영, 2011; 임현주, 이대균, 2012; 조성희, 박소영, 2012)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elsky와 Isabella(1985)는 아버지와 자녀의 상호작용시간은 부부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이정순(2003a)의 연구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가정에서 아버지가 양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자녀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배우자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 주며,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참여는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을 넘어 부부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하였다. 특히, 맞벌이 부부 내에서는 남편의 양육참여가 아내의 가사 및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일·가정 갈등을 적게 경험하게 하여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고,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을 크게 느끼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남편의 양육참여가 남편의 양육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와는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지는 연구된 바가 없다. 남편의 양육참여가 남편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김가운, 신혜영, 2013; 김정원, 김유정, 2007; Halme, Tarkka, Nummi, & Astedt-Kurki, 2006)만

소수 이루어졌으며, 남편의 양육참여행동을 높일 수 있는 선행변인들을 탐색한 연구들(김영희, 신희정, 채영문, 2007; 연은모, 최효식, 홍윤정, 김정아, 2014)이 존재할 뿐이다. 이렇듯 남편의 양육참여와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가 거의 없음에도, Bronte-Tinkew, Horowitz와 Carrano(2010)의 연구에서는 아내의 양육스트레스를 통제하고도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에 대한 참여가 부적으로 관계를 보여, 남편의 양육참여와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가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남편이 양육참여를 함으로써 본인의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결혼만족도가 증가하는지, 혹은 반대로 양육참여를 하게 되어 결혼만족도가 감소하는지, 또한 남편이 양육참여를 하여 줄어드는 아내의 양육스트레스는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앞서 고찰한 남편의 양육참여와 관련해, 남편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면 남편의 양육참여가 낮아진다는 연구(Bronte-Tinkew, Horowitz, & Carrano, 2010), 그리고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높으면 아내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아진다는 연구들(안재진, 2011; 연은모 등, 2014; 이정순, 2003b)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동일한 시점에 측정을 하여 이루어진 횡단연구들이기 때문에, 결과를 해석할 때에 남편의 양육참여가 높으면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졌거나, 양육스트레스가 낮아서 결혼만족도가 높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단적으로 측정한 자료들을 통해 남편의 양육참여와 부부의 양육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밝

혀보고자 한다.

또한, 남편의 양육참여와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남편의 자녀양육에 대한 참여가 높으면 아내의 결혼만족도도 높게 나타나는데, 그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가 부분 매개의 역할도 하는 것으로 보고된다(금지현, 김동심, 2014; 조성희, 박소영, 2012). 이와 유사하게, 남편의 양육참여가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결혼만족도를 높인다는 결과(임현주, 이대균, 2012)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남편의 양육참여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어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남편의 양육참여가 남편의 양육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보고된 바가 거의 없어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남편과 아내 모두의 양육스트레스나 결혼만족도를 측정 한 커플자료(dyadic data)로 남편과 아내간의 상호의존적 영향을 살펴보는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델(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을 구성하여 자신의 심리적 측면이나 행동이 자기 자신에게 미치는 효과인 '자기효과'(actor-effect)와 상대방에게 미치는 효과, 즉 '상대방 효과'(partner-effect)를 함께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Cook & Kenny, 2005).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 효과와 자기효과를 본 최근의 연구들은 남편과 아내 각각의 사랑유형이나 헌신, 용서(서정선, 신희천, 2007; 황성실, 김영희, 2013; Gana, Saada, & Untas, 2013)나 각각의 긍정성이나 정서성, 자존감과 같은 개인적 특성(박운주, 김병석,

2013; 이숙희, 고재홍, 2012) 혹은 부부간의 갈등해결이나 역할 균등함, 의사소통, 스트레스와 배우자 지지와 같은 부부간의 관계(김시연, 서영석, 2010; 박영화, 고재홍, 2005; Chen & Li, 2012; Leavitt, McDaniel, Maas, & Feinberg, 2017)가 서로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각각의 요인들이 서로에게 미치는 상대방효과와 자기효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그 중 김시연과 서영석(2010)의 연구에서는 유아기 및 학령기 자녀를 둔 부부의 스트레스가 높으면 결혼만족도가 낮아짐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아내의 스트레스보다 남편 본인의 스트레스가 남편의 결혼만족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지만, 아내의 결혼만족에는 아내의 스트레스만큼 남편의 스트레스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혔다. 취업주부와 그 남편 모두의 행복에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박영신, 김의철, 2011)를 기반으로 할 때, 이러한 양상이 맞벌이 부부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탐색해봄으로써, 유아기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경험하는 양육관련 스트레스가 맞벌이 부모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확인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결혼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가 각자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하고, 부부의 양육스트레스가 각자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상대방효과의 크기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남편의 양육참여와 부부의 결혼만족도 간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남편의 양육참여,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 간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부 각각의 양육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남편의 양육참여와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 간 관계에서 부부의 양육스트레스가 매개적 역할을 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의 5차년도부터 7차년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이정림 등, 2015).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 4월부터 7월 사이 전국을 대상으로 2006년 기준 500건 이상의 출산 의료기관에서 다단계층화 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출생한 신생아 가족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차에서 7차년도까지의 2150쌍 중에서 자녀가 부모와 비동거하는 경우 725쌍, 5~7차년도까지 외벌이인 780쌍, 5차년도에는 맞벌이였으나 6, 7차년도에 외벌이가 된 116쌍, 부부 중 한명만 응답하였거나 불성실한 응답인 134쌍을 제외한 후, 유아와 함께 살며 지속적으로 동시에 취업 중인 395쌍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 부부의 연령대는 30대가 남편 275명(69.6%), 아내 333명(84.3%)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수준도 대졸자가 남편 174명(44.1%)와 아내 173명(43.8%)로 가장 많았다. 남편의 직업은 사무종사자가 97명(24.6%), 전문가 관련 종사자가 92명(23.3%), 장치·기계 조작종사자가 46명(11.6%) 순이었고, 아내의 직업은 전문가 관련 종사자가 150명(38.0%), 사무종사자 81명(20.5%) 순이었다. 연구대상자의 가구소득은 월 평균 539.24만원( $SD = 215.27$ )이었고, 자녀의 월령은 평균 51.12개월( $SD = 1.19$ )로 자녀의 성별은 남아 202명(51.1%), 여아 193명(48.9%)이었다.

###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PSKC 중 자녀가 만 4세 때(5차, 2012년)의 남편의 양육참여, 자녀가 만 5세 때(6차, 2013년)의 부부 각각의 양육스트레스 및 자녀가 만 6세 때(7차, 2014년)의 부부 각각의 결혼만족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 남편의 양육참여

남편의 양육참여는 홍성례(1995)의 부모역할을 측정하는 6문항 중 일부 수정한 총 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응답은 아내가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남편이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응답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 Likert 5점 척도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4점~20점이다. 문항은 ‘남편은 아이에게 필요한 장난감이나 물품을 사다준다.’, ‘남편은

아이와 함께 자주 놀아주거나 이야기 상대가 되어 준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1$ 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의 양육참여를 측정 시 아내의 인식과 남편의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없다고 보고(김은지, 전귀연, 2016; 도남희 등, 2013)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내가 응답한 남편의 양육참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개 문항 각각을 측정변수로 구성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 양육스트레스

아내와 남편의 양육스트레스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중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로 이루어진 11문항을 사용하여 부모역할 수행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과 부모가 인지하는 어려움을 측정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아이가 태어난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범주는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로 구성되어 11에서 55점의 점수 범주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에서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남편은 Cronbach's  $\alpha = .88$ , 아내는 Cronbach's  $\alpha = .87$ 이었다.

양육스트레스는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측정하기 위해 Russell, Kahn, Spoth와 Altmaier(1998)의 제안에 따라 문항꾸러미(item

parcel)를 구성하여 측정변수를 설정하였다. 이때 문항꾸러미를 설정하기 위해 요인을 1개로 지정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문항들을 요인부하량에 따라 순서를 부여하고 각 꾸러미가 동일한 부하량을 갖도록 문항들을 세 개의 꾸러미로 배분하였다.

#### 결혼만족도

아내와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Schumm, Nichols, Schectman과 Grigsky(1983)이 개발한 KMSS(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Chung(2004)이 수정한 RKMSS(Revised-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의 4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문항 내용은 ‘귀하는 아버지(어머니)로서의 남편(아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귀하는 남편(아내)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등으로, 응답의 범주는 “전혀 만족하지 않다(1점)”부터 “매우 만족한다(4점)”의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에서 16점의 점수 범주를 갖는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자 지각하는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남편과 아내 모두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4개 문항 각각을 측정변수로 구성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 3. 자료 분석

먼저,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남편의 양육참여, 부부의 양육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의 정규성과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와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조사도구의 신뢰도 측정을 위해 문항간 내

적합치도 지수 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다. 연구모형 검증에 앞서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주요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커플자료(dyadic data)로, 부부 각각의 변인들 간 관계에서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측정모형 분석을 포함하여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분석하였고, 모형이 실제자료와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절대적합지수(RMSEA)와 모형간 상대적합지수(CFI, TLI)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부의 양육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남편과 아내의 점수는 각각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된 Z점수로 환산하고, 이 표준화된 점수(Z값)를 이용하여 효과를 검증하였다. 부부의 양육스트레스 점수와 결혼만족도 점수 간의 경로가 유의한지 살펴본 후, 크기차이 검증을 위해 총 4회의 등가제약을 가하여 등가제약 모형을 설정한 후 기본모형과의 차이가 자유도 1을 기준으로 한 임계치를 추정하여 남편과 아내에 따른 두 경로계수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양육참여와 부부의 결혼만족도 간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분석들에 앞서, 가구소득과 맞벌이 부부의 교육수준을 통제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2.0(IBM Co., 2013)과 Amos 22.0(IBM Co., 2013)를 사용하였다.

### III. 결과 및 해석

#### 1. 기초분석

본 분석에 앞서 양육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에서의 남편과 아내 간 성차를 살펴보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양육스트레스( $t = 2.91, p < .01$ )와 결혼만족도( $t = -5.13, p < .001$ ) 모두에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아내의 양육스트레스( $M = 2.59, SD = 0.61$ )가 남편의 양육스트레스( $M = 2.47, SD = 0.61$ )보다 높았으며, 아내의 결혼만족도( $M = 3.20, SD = 0.66$ )보다 남편의 결혼만족도( $M = 3.43, SD = 0.59$ )가 높았다. 즉, 아내는 남편보다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이 더 높고, 남편은 아내보다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아내의 양육스트레스와 남편의 양육스트레스는 정적상관( $r = .41, p < .001$ )을 보였고, 아내의 결혼만족도와 남편의 결혼만족도도 정적상관( $r = .47, p < .001$ )을 보였다. 즉,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는 서로 상관이 있었다. 또한, 아내의 양육스트레스는 자신 및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부적상관( $r_s = -.17, -.27, p < .001, p < .01$ )을, 남편의 양육스트레스도 자신 및 아내의 결혼만족도와 부적상관( $r_s = -.24, -.28, p < .001, p < .001$ )을 보였다. 즉, 아내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면 아내와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더 낮게 나타나며, 남편의 양육스트레스도 높으면 아내와 남편의

표 1. 변인들 간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 $N = 395$ )

| 변인           | 1      | 2       | 3       | 4      | 5    |
|--------------|--------|---------|---------|--------|------|
| 남편의 양육참여     | -      |         |         |        |      |
| 아내 양육스트레스    | -.12*  | -       |         |        |      |
| 남편 양육스트레스    | -.10   | .41***  | -       |        |      |
| 아내 결혼만족도     | .43*** | -.27*** | -.24*** | -      |      |
| 남편 결혼만족도     | .17**  | -.17**  | -.28*** | .47*** | -    |
| 평균( $M$ )    | 3.66   | 2.59    | 2.47    | 3.20   | 3.43 |
| 표준편차( $SD$ ) | 0.76   | 0.61    | 0.61    | 0.66   | 0.58 |
| 왜도(Skewness) | -.38   | .05     | .14     | -.83   | -.97 |
| 첨도(Kurtosis) | -.24   | .19     | .01     | .99    | 1.45 |

\* $p < .05$ . \*\* $p < .01$ . \*\*\* $p < .001$ .

결혼만족도도 더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남편의 양육참여는 아내의 양육스트레스와 부적상관( $r = -.12, p < .05$ )을, 아내 및 남편 결혼만족도( $r_s = .43, .17, p < .001, p < .01$ )와는 정적상관을 보여, 남편의 양육참여가 많을수록 아내의 양육스트레스는 적었고, 부부 모두의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 2. 양육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상대방효과 및 효과크기 검증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

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설정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chi^2(168) = 416.92, p < .001, TLI = .938, CFI = .950, RMSEA = .061, 90\% CI [.054, .069]$ 로 나타나 모형이 분석 자료를 잘 설명하였다(Hu & Bentler, 1999). 구체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양육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이 남편과 아내의 양육스트레스가 각각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는 모두 유의하였으나(아내:  $\beta = -.22, p < .001$ , 남편:  $\beta = -.29, p < .001$ ), 상대방효과는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남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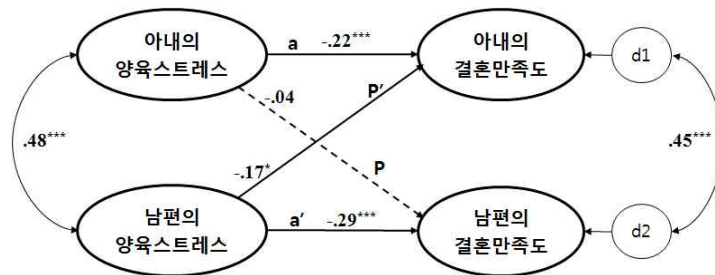


그림 1.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양육스트레스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 $p < .05$ . \*\*\* $p < .001$ .

양육스트레스만 나타났다( $\beta = -.17, p < .05$ ). 즉, 남편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나, 아내의 양육스트레스는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남편의 양육참여와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4번의 등가제약모형을 설정하였다. 등가제약 모형은 (1) 양육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남편과 아내의 자기효과 비교( $a = a'$ ), (2) 양육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남편과 아내의 상대방효과 비교( $p = p'$ ), (3)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양육스트레스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비교( $a = p'$ ), (4)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양육스트레스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비교( $a' = p$ )이다. 이를 위해 등가제약모형과 기본모형 간  $\chi^2$  차이검증을 실시하여 등가제약 모형과 기본모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면 효과 간의

차이가 유의하다는 점에 기초하였다.

그 결과, 표 2와 같이 결혼만족도에 대한 자기효과를 등가제약한 모형과 상대방효과를 등가제약한 모형은 기본 모형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맞벌이 부부 각자가 지각한 양육스트레스가 각자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와 서로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에서의 크기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아내의 자기효과와 남편의 상대방 효과를 등가제약한 모형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남편의 자기효과와 아내의 상대방 효과를 등가제약한 모형에서는 기본모형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아내의 양육스트레스와 남편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남편의 결혼만족도에는 남편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내의 양육스트레스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등가제약 모형 검증

(N = 395)

| 모형                                  | $\chi^2$  | df  | TLI  | CFI  | RMSEA | $\Delta\chi^2(\Delta df)$ |
|-------------------------------------|-----------|-----|------|------|-------|---------------------------|
| 기본모형                                | 416.92*** | 168 | .938 | .950 | .061  |                           |
| 자기효과의 등가제약모형( $a = a'$ )            | 417.30*** | 169 | .938 | .950 | .061  | 0.39(1)                   |
| 상대방효과의 등가제약모형( $p = p'$ )           | 419.55*** | 169 | .938 | .950 | .061  | 2.63(1)                   |
|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대한<br>등가제약모형( $a = p'$ ) | 416.92*** | 169 | .938 | .950 | .061  | 0.03(1)                   |
|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br>등가제약모형( $a' = p$ ) | 423.00*** | 169 | .937 | .949 | .062  | 6.09(1)*                  |

\*  $p < .05$ . \*\*\*  $p < .001$ .

### 3. 남편의 양육참여 및 양육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먼저, 남편의 양육참여의 4개 문항들,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의 3개의 문항꾸러미 및 결혼만족도의 4개의 문항들이 잠재변인을 잘 측정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모수추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125) = 353.99, p < .001$ , TLI = .941, CFI = .952, RMSEA = .068(90% CI [.060, .077])로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Hu & Bentler, 1999).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남편의 양육참여의 측정변인들은 .52 ~ .83, 남편의 양육스트레스의 측정변인들은 .79 ~ .81, 아내의 양육스트레스 측정변인들은 .73 ~ 남편 및 아내의 결혼만족도 측정변인들은 .74 ~ .94로 모두  $\alpha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표준화된 요인 부하량이 .30 이상이어야 한다는 근거에 따라(Heller, Robinson, Henry, & Plunkett, 2006), 본 연구모형의 측정변인은 잠

재변인의 개념을 적절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남편의 양육참여와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chi^2(170) = 416.29, p < .001$ , TLI = .928, CFI = .947, RMSEA = .060(90% CI [.053, .068])로 나타나 모형이 분석자료를 잘 설명하였다(Hu & Bentler, 1999). 구체적으로, 그림 2와 같이 남편의 양육참여는 아내의 양육스트레스에 부정적 영향을( $\beta = -.13, p < .05$ ), 아내의 결혼만족도( $\beta = .37, p < .001$ )와 남편의 결혼만족도( $\beta = .14, p < .01$ )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남편이 양육참여를 많이 한다고 생각할수록 아내의 양육스트레스는 낮게 나타나고, 아내의 결혼만족도와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높았다. 또한, 남편과 아내의 양육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남편과 아내의 양육스트레스가 각각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는 모두 유의하였으나(아내:  $\beta = -.18, p < .01$ , 남편:  $\be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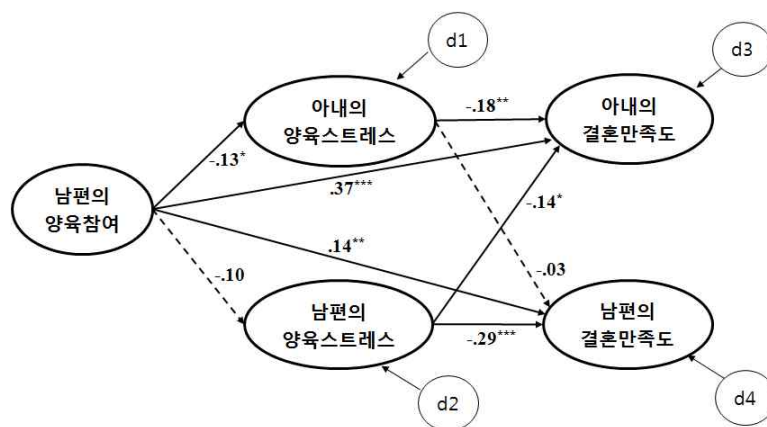


그림 2.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남편의 양육참여 및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의 효과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3. 경로에서의 직접, 간접 및 총효과

(N = 395)

| 경로         |   |            | Bootstrapping |      |        | SMC  |
|------------|---|------------|---------------|------|--------|------|
|            |   |            | 직접효과          | 간접효과 | 총효과    |      |
| 남편의 양육참여   | → | 아내의 결혼만족도  | .37*          | .04* | .40*   | .264 |
| 아내의 양육스트레스 | → | 아내의 결혼만족도  | -.18**        | -    | -.18** |      |
| 남편의 양육스트레스 | → | 아내의 결혼만족도  | -.14*         | -    | -.14*  |      |
| 남편의 양육참여   | → | 남편의 결혼만족도  | .14*          | .03  | .18*   | .144 |
| 아내의 양육스트레스 | → | 남편의 결혼만족도  | -.03          | -    | -.03   |      |
| 남편의 양육스트레스 | → | 남편의 결혼만족도  | -.29*         | -    | -.29*  |      |
| 남편의 양육참여   | → | 아내의 양육스트레스 | -.13*         | -    | -.13*  | .040 |
| 남편의 양육참여   | → | 남편의 양육스트레스 | -.10          | -    | -.10   | .023 |

주.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다중상관자승

\* $p < .05$ . \*\* $p < .01$ .

= -.29,  $p < .001$ ), 상대방효과는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남편의 양육스트레스만 나타났다( $\beta = -.14$ ,  $p < .05$ ). 즉, 남편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나, 아내의 양육스트레스는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남편의 양육참여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부부의 양육스트레스를 통한 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인은 남편의 양육참여( $\beta = .40$ ,  $p < .05$ )로, 아내의 양육스트레스( $\beta = -.18$ ,  $p < .01$ ), 남편의 양육스트레스( $\beta = -.14$ ,  $p < .05$ ) 순이었다.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변인은 남편의 양육스트레스( $\beta = -.29$ ,  $p < .05$ ), 남편의 양육참여( $\beta = -.14$ ,  $p < .05$ ) 순이었다.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남편의 양육참여는 아내의 양육스트레스를 통해 아내의 결

혼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였다( $\beta = .04$ ,  $p < .05$ ).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각자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보고, 남편의 양육참여가 부부의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남편보다 아내의 양육스트레스가 높고, 결혼만족도는 낮았으며, 아내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면 남편의 양육스트레스도 높고,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높으면 남편의 결혼만족도도 높았다. 또한, 아내와 남편의 양육스트레스는 각자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남편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아내의 양육스트레스는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의 양육참여와 아내의 결혼만족도 간 관계에서 아내의 양육스트레스는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관련하여,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자신의 결혼만족도를 낮춘다는 결과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금지현, 김동심, 2014; 전춘애, 박성연, 1996; 조성희, 박소영, 2012; Bodenmann, 2005)과 일치한다. 특히 취업모는 일·가정 갈등에 처하기 쉬우므로(Voydanoff, 2004),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편의 양육스트레스도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남편의 스트레스는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이정은, 이영호, 2000)나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스트레스에 더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는 연구들(김시연, 서영석, 2010; Whiffen, & Gotlib, 1989)과 일맥상통한다. 즉, 본 연구는 남편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아내와 동일하게 남편도 자녀를 양육하며 겪게 되는 스트레스가 결혼에 대한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건강한 맞벌이 가족의 존립을 위해서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과정에서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부부의 양육스트레스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상대방효과와 관련하여, 맞벌이 부부 중 남편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나, 아내의 양육스트레스는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남편의 가사분담에 만족도가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유계숙, 2010)와 유사하다. 다시 말해, 남편이 양육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으면 취업모의 결혼에 대한 만족도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아내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은 결과는 남편의 인식에서 여전히 자녀의 양육에 대한 주된 담당자로서의 아내의 역할을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다. 즉, 남편은 아내가 주양육자로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당연히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을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아내의 양육스트레스는 남편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아내가 겪게 되는 높은 양육스트레스는 남편의 결혼생활이나 부부관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하지 않아야 하는데, 맞벌이 부부 내에서 아내의 양육스트레스가 남편의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이인정, 김미영, 2014)가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부부의 양육스트레스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의 크기를 검증한 결과, 아내와 남편 간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의 크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아내의 양육스트레스와 남편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에서도 차이가 없었으나, 남편의 결혼만

족도에는 남편의 양육스트레스만이 영향을 미쳤다. 즉, 맞벌이 부부의 아내와 남편 모두 자신의 양육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며,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편의 양육스트레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아내 스트레스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남편의 스트레스는 영향을 미친다는 이정은과 이영호(2000)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무엇보다 자신이 느끼는 결혼에 대한 만족은 자신이 지각하는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에 의해 큰 영향을 받게 되며, 특히 이러한 경향은 아내보다는 남편에게 뚜렷하게 나타남으로써, 맞벌이 부부 내 남편의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남편의 양육참여가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남편의 양육참여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남편의 양육참여 혹은 양육에 대한 지지가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들(김기현, 조복희, 2000; 김명원, 강민주, 2011)과 유사하다. 즉, 본 연구결과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취업모를 위해서는 남편의 역할이 특히 중요함을 보여주며, 맞벌이 부부 내에서 남편의 양육에 대한 참여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아내의 부담을 줄여주며 아내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변인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반면, 남편의 양육참여는 본인의 양육스트레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양육에 대한 참여가 남편의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맞벌이 부부

내 남편이 유아기 자녀의 양육활동에 참여한다고 하여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는다는 결과이다. 남편의 양육참여와 양육스트레스는 부적상관이 있고(이지희, 문혁준, 2005), 남편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면 양육참여가 적다는 연구(Bronte-Tinkew, Horowitz, & Carrano, 2010)는 보고되나,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남편이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것과 양육스트레스는 오히려 관련이 없음을 밝혔다. 다만, 본 연구에서 남편의 양육참여가 아내의 응답으로 측정되었다는 점에서, 남편이 지각하는 양육참여는 남편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패널데이터에서의 양육참여에 대한 아내와 남편의 인식은 차이가 없었으나(도남희 등, 2013), 남편의 양육참여에 대한 맞벌이 부부의 지각 차이는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김은지, 전귀연, 2016) 남편의 양육참여에 대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응답자에 따라 양육참여가 아내 및 남편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남편의 양육참여가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남편의 양육참여는 남편 및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남편이 양육참여를 할수록 아내도 결혼에 대해 만족하고, 남편도 결혼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양육참여가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본 결과는 취업모가 남편의 가사분담 혹은 자녀양육에 만족할수록 결혼생활에 만족한다는 연구결과들(김진경, 2015; 유

계속, 2010; 임현주, 이대균, 2012)과 일치한다. 무엇보다 남편의 양육참여가 부부 모두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결과는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가족주기에서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는 남편의 양육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남편의 양육참여가 스스로의 결혼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흥미로운데, 자녀 양육 참여가 높을수록 남편이 스스로를 유능한 부모로 인식하게 되어 부모 역할에 대한 만족감과 자신감이 증대됨에 따라(이정순, 조희숙, 2005), 자신의 결혼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이인정, 2015). 또한, 남편의 양육참여가 본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와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손영빈, 윤기영, 2011)를 토대로 남편의 양육참여와 결혼만족도 간 쌍방향적으로 미치는 선순환적인 영향력을 생각해볼 수 있다. 따라서 아내의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남편의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위해서 맞벌이 부부 내 남편의 양육참여를 독려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구조적 체계 정립이 요구된다.

셋째, 남편의 양육참여와 취업모의 결혼만족도 간 관계에서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편의 높은 양육참여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켜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조성희와 박소영(2012)의 연구와 유사한 것으로, 남편이 유아기 자녀를 대상으로 지지적으로 양육참여를 하게 되면 아내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결과적으로 아내의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취업모의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내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개입을 고려하고, 실질적으로 아내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남편의 양육참여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종단적인 접근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장 특성과 가족 특성과 같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는 추후 연구에서 다양한 변인을 반영한 연구모형을 개발해나감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이용된 패널자료가 갖는 측정도구 문항들에 대한 대표성이나 다양성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선행연구와의 차이를 분석할 때 측정도구에 의한 차이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유아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져있는 상태에서,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그 효과를 재검증함으로써 남편과 아내 모두 결혼만족도에 대한 자기효과가 큰 만큼,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밝혔다. 즉, 맞벌이 부부의 남편 및 아내가 공동양육자로서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며 생기는 스트레스를 줄임으로서 자신의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추후 긍정적 양육으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맞벌이 부부의 건강한 가족성 증진을 위한 개입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교육을 계획할 때, 부부 간 역할 조정 및 스트레스 대처와 관리, 양육참여 등의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취업모 상담 시 양육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대해 갖는 영향력을 이해하고,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개입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남편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내의 양육스트레스만큼 아내의 결혼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남편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많은 관심도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김혜련, 윤미자 (2004). 여성관리자의 다중역할 몰입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 조직과 인사 관리 연구, 28(1), 55-85.
- 금지현, 김동심 (2014). 취업모의 직무만족도, 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 배우자 양육참여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52(2), 141-150.
- 김가운, 신혜영 (2013). 아버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참여,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의 상대적 영향력 탐색.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2), 191-213.
- 김기현, 강희경 (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학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기현, 조복희 (2000).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변인 탐색. 아동학회지, 21(4), 35-50.
- 김명원, 강민주 (2011).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사회적 지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9(8), 25-35.
- 김민녀, 채규만 (2006).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기혼자의 결혼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4), 655-671.
- 김선애, 한유진 (2009). 아버지의 양육수행,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지식이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7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8(1), 55-64.
- 김시연, 서영석 (2010). 스트레스, 배우자지지, 결혼만족 간 관계: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2), 189-213.
- 김영희, 신희정, 채영문 (2007). 원가족의 정서 분위기, 결혼만족도 및 부모역할 자신했던 유아기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2(2), 67-87.
- 김유나, 박애리 (2016). 맞벌이 가구와 남성홀벌이 가구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연구: 부부관계와 아버지 양육참여의 상호작용 효과 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1(1), 51-76.
- 김은지, 전귀연 (2016). 맞벌이 부모 간 아버지 양육참여의 지각차이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우울의 매개효과. 대한가정학회지, 54(5), 487-498.
- 김정원, 김유정 (2007). 영유아기 자녀를 둔 우리나라 아버지 관련 연구 경향 분석: 1980년대 이후 학술지논문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5(5), 25-38.
- 김진경 (2015).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결혼

- 만족도 및 가정환경 탐색-취업여부를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4), 63-79.
- 노성숙, 한영주, 유성경 (2012). 한국에서 '워킹맘'으로 살아가기: 직장인 엄마의 다중역할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2), 365-395.
- 도남희, 민정원, 왕영희, 인예진, 김소아, 엄지민 (2013). 한국아동패널 2013 (연구보고 2013-41).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박성연 (1992).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능력발달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61(2), 305-329.
- 박영신, 김의철 (2011). 중년기 성인 남녀의 행복 형성 요인: 전업주부, 취업주부와 그들의 남편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8(1), 65-108.
- 박영화, 고재홍 (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65-83.
- 박운주, 김병석 (2013). 부부의 상위기분과 정서표현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배우자 효과. 상담학연구, 14(5), 2945-2967.
- 서정선, 신희천 (2007). 용서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델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1), 87-106.
- 서주현, 김진경 (2012).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영유아보육학, 73, 101-121.
- 손영빈, 윤기영 (2011). 아버지의 역할지각, 양육참여도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3), 105-126.
- 송진숙, 송진영 (2009). 만 3세-5세 유아를 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4(6), 185-205.
- 안재진 (2011). 부의 양육참여가 출산 후 초기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부부관계의 질을 매개로-. 한국아동복지학, 35, 127-158.
- 연은모, 최효식, 홍윤정, 김정아 (2014). 영유아 아버지의 결혼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 양육협조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특성의 매개효과와 배우자의 취업유무의 조절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86, 51-78.
- 우현주, 유계숙 (2013). 스트레스에 대한 부부공동대처가 결혼만족도와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2), 51-71.
- 유계숙 (2010). 맞벌이부부의 가사분담이 부인의 일-가족 전이와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여성연구, 49(1), 41-69.
- 이경희, 김영희, 신성일 (2012).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결혼만족도가 유아의 자기조절력 및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7(1), 125-152.
- 이숙희, 고재홍 (2012). 부부의 긍정적 착각과 결혼만족도: 자기효과와 배우자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2), 149-170.
- 이영미, 김정희 (1997). 성역할정체감, 사회적 지지 및 일상적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와 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

- 료, 9(1), 351-365.
- 이인정 (2015). 남편의 양육참여가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6(1), 343-370.
- 이인정, 김미영 (2014).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5(3), 127-149.
- 이정림, 김길숙, 송신영, 이예진, 김진미, 김소아, 김시경 (2015). 한국아동패널 2015 (연구보고 2015-33).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순 (2003a).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부관계, 부모성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4(3), 97-108.
- 이정순 (2003b).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3(3), 5-19.
- 이정순, 조희숙 (2005). 가족역할 및 직업역할이 유아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9(2), 43-58.
- 이정은, 이영호 (2000). 개인특성, 스트레스 및 부부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3), 531-548.
- 이지희, 문혁준 (2005).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 및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생활과학연구논집*, 25(1), 75-95.
- 임현주, 이대균 (2012). 영아자녀를 둔 취업모와 전업모의 부부특성, 경제특성, 심리특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2(5), 451-470.
- 전춘애, 박성연 (1996). 자녀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5), 115-129.
- 조성희, 박소영 (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0(3), 505-524.
- 통계청 (2016). 2015년 기준 「신혼부부 통계」 결과.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58364](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58364)에서 2017년 9월 1일 인출
- 홍성례 (1995). 30대 남편의 가족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성실, 김영희 (2013). 부부의 헌신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3), 45-61.
- Abidin, R. R. (1990).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resse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4), 298-301.
- Barnett, R. C., & Hyde, J. S. (2001). Women, men, work, and family: An expansionist theory. *American Psychologist*, 56(10), 781-796.
- Belsky, J., & Isabella, R. A. (1985). Marital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family of origin and marital change following the birth of a baby: A retrospective analysis. *Child Development*, 56(2), 342-349.
- Bodenmann, G. (2005). Dyadic coping and its significant for marital functioning. In T. A. Revenson, K. Kayser, & G. Bodenmann (Eds.), *Couples coping with stress: Emerging perspectives on dyadic coping* (pp. 33-50).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radbury, T. N., Fincham, F. D., & Beach, S. R. (2000). Research on the nature and determinants of marital satisfaction: A decade in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4), 964-980.
- Bronte-Tinkew, J., Horowitz, A., & Carrano, J. (2010). Aggravation and stress in parenting: Associations with coparenting and father engagement among resident fathers. *Journal of Family Issues*, 31(4), 525-555.
- Chen, L. H., & Li, T. (2012). Role Balance and Marital Satisfaction in Taiwanese Couples: An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proa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7(1), 187-199.
- Chung, H. (2004). Application and revision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for use of Korean couples. *Psychological Reports*, 95(3), 1015-1022.
- Cole, C. L. (1984). Marital quality in later life. In W. H. Quinn, & G. A. Hughston (Eds.), *Independent aging: Family and social systems perspectives* (pp. 72-90). Rockville, Md: Aspen Systems Corporation.
- Cook, W. L., & Kenny, D. A. (2005).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 model of bidirectional effects in developmental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2), 101-109.
-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5), 1628-1637.
- Davies, P. T., Sturge-Apple, M. L., Weitach, M. J., & Cummings, E. M. (2009). A process analysis of the transmission of distress from interparental conflict to parenting: Adult relationship security as an explanatory mechanism. *Developmental Psychology*, 45(6), 1761-1773.
- Dew, J., & Wilcox, W. B. (2011). If momma ain't happy: Explaining declines in marital happiness among new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3(1), 1-12.
- Frone, M. R. (2003). Work-family balance. In J. C. Quick, & L. E. Tetrick (Eds.), *Handbook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pp. 143-16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Froyen, L. C., Skibbe, L. E., Bowles, R. P., Blow, A. J., & Gerde, H. K. (2013). Marital satisfaction, family emotional expressiveness, home learning environments, and children's emergent literac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5(1), 42-55.
- Gana, K., Saada, Y., & Untas, A. (2013). Effects of love styles on marital satisfaction in heterosexual couples: A dyadic approach. *Marriage & Family Review*, 49(8), 754-772.
- Gilbert, G., Hanson, R., & Davis, B. (1982). Perception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 Differences between mothers and fathers. *Family Relations*, 31(2), 261-269.
- Halme, N., Tarkka, M., Nummi, T., & Åstedt-Kurki, P. (2006).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on fathers' availability and engagement. *Child Care in Practice*, 12(1),

- 13-26.
- Heller, S. R., Robinson, L. C., Henry, C. S., & Plunkett, S. W. (2006).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 perceptions of parent adolescent openness in communication and adolescent empathy. *Marriage & Family Review*, 40(4), 103-122.
- Hochchild, A. R., & Machung, A. (1989). *The second shift*. New York: Avon Books.
-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fit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Lamb, M. E. (2004).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4th ed.). New York: Wiley.
- Leavitt, C. E., McDaniel, B. T., Maas, M. K., & Feinberg, M. E. (2017). Parenting stress and sexual satisfaction among first-time parents: A dyadic approach. *Sex Roles*, 76(5-6), 346-355.
- Liu, L., & Wang, M. (2015). Parenting stress and Children's problem behavior in China: The mediating role of parental psychological aggressio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9(1), 20-28.
- Revenson, T. A., Kayser, K., & Bodenmann, G. (2005). *Couples coping with stress: Emerging perspectives on dyadic coping*.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S.,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9.
- Schumm, W. R., Nichols, C. W., Schectman, K. L., & Grigsby, C. C. (1983). Characteristics of responses to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by a sample of 84 married mothers. *Psychological Reports*, 53(2), 567-572.
- Spanier, G. B., Lewis, R. A., & Cole, C. L. (1975). Marital adjustment over the family life cycle: The issue of curvilinear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2), 263-275.
- Voydanoff, P. (2004). The effects of work demands and resources on work-to-family conflict and facilit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2), 398-412.
- Whiffen, V. E., & Gotlib, I. H. (1989). Stress and coping in maritally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coupl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6(3), 327-344.

1 차원고접수 : 2017. 07. 24.

수정원고접수 : 2017. 08. 12.

최종게재결정 : 2017. 08. 23.

## Father Involvement, Parenting Stress, and Marital Satisfaction in Dual Earner Couples with Preschoolers: A Longitudinal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Yun, Kibong<sup>1)</sup>

Chee, Yeon Kyung<sup>2)</sup>

<sup>1)</sup>Child & Family Research Institute, Ewha Womans University

<sup>2)</sup>Dept. of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father involvement and parenting stress on marital satisfaction of dual earner couples with preschoolers. Longitudinal dyadic data were drawn from parents with preschoolers from the 5th (2012) to 7th waves (2014) of the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Paired *t*-tests, correlation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employed to investigate the actor-partner effects for data analysis. Overall, wives had higher parenting stress and lower marital satisfaction than husbands; furthermore, when wives reported as such, their husbands followed the same pattern. While couples with greater parenting stress reported lower marital satisfaction showing significant actor effect, the partner effect was significant only for the negative effect of husbands' parenting stress on wives' marital satisfaction. In addition, husbands' parenting stress had larger effects on husbands' own marital satisfaction than the wives' parenting stress. Finally, greater husband involvement in parenting increased wives' marital satisfaction, which was mediated by wives' lower parenting stress. These longitudinal findings suggest that efforts should be directed toward alleviating parenting stress for husbands as well as wives to promote marital well-being among dual career families.

*Keywords:* dual earner couples, father, parenting stress, marital satisfaction,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